

## 올해 미국 유망직업 1위는 SW개발자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대규모 감원 물결에도 올해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가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US뉴스)는 최근 미 노동통계국 자료를 분석해 고용 수요, 성장, 임금 수준, 고용률, 앞으로의 직업 전망, 스트레스 정도,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 등을 기준으로 최고의 일자리 10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불황 우려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됐다.

이런 가운데 SW 개발자가 최고의 직업 1위에 올랐다. 최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가 대규모 감원에 나섰지만, 금융·소매유통업 등 정보기술(IT) 외 기존 산업에서는 여전히 개발자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최고의 직업 10개 중 IT 분야가 4개,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IT 분야에서는 1위 외에도 정보보안 분석가가 5위, IT 관리자가 8위, 웹 개발자가 9위에 각각 올랐다.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2위 임상 간호사, 3위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관리자, 4위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PA), 6위 물리치료사, 10위 치과 의사가 순위에 들었다.

이밖에 7위는 금융 관리자(Financial Manager)였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직종 20개 중에서는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13개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안정성이 높은 직업 1위로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치료를 돕는 호흡기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가 뽑혔다.

한편 대학 전공과 관련해 ‘밝은 미래 전공’의 순위에서도 컴퓨터 관련 전공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미국의 Bachelor degree center(BDC, bachelorsdegreecenter.org)가 내놓은 30개 고액 연봉 전공 1위는 컴퓨터 사이언스다. BDC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 대해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조직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바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 기업에서 유명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에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의 사양에 맞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 사이트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가 항상 필요하다. 그러므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오늘날 미국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취업 관련 검색엔진 ‘Indeed’가 밝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평균 연봉은 10만 9,157달러다. 미국 노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연봉 중간값은 13만 1,490달러다. 미국에서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이 5만 63,24달러인 것에 비하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급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 낮은 고교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대입전형에서 고교 내신성적(GPA)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대입 컨설팅업체인 ‘IvyFocus’ (ivyfocus.com)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신성적 올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단 11~12학년의 경우 이런 속성법들이 GPA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 덜 어려운 과목 수강

대입 전형을 생각하면 도전적 과목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 학점이 너무 낮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은 이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GPA를 개선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낮은 GPA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어려운 과목에서 고군분투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전체 학점을 올릴 수 있다. 난이도가 낮은 수업에서 A를 받기 시작한다면 GPA는 4.0으로 뛰어 오르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 ■ 수업 더 많이 듣기

일부 학생들은 손사래를 칠 수도 있지만 이 방법 또한 GPA를 속성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부하기 힘든데 왜 수업을 더 들어야 하나?”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GPA를 구성하는 것은 필수나 핵심 과목만이 아니라 선택과목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수강한다. 어려운 핵심과목에 비해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GPA를 빨리 올릴 수는 있지만 명문대 합격을 목



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대학들은 지원자가 어떤 특정 과목들을 편중해 수강하고 GPA를 받았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선택과목을 선택하면 학점을 빨리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다. 핵심 과목에서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입전형에서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핵심과목 성적 향상에 중점을 줘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 가중치 GPA 수업 성적 집중

가중치 GPA(Weighted GPA)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수강하고 있는 AP나 어너 클래스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중치 GPA에서는 종종 난이도가 있는 과목에 대해 4.0이 아닌 5.0으로 측정한다. 이는 어너 클래스에서의 B학점은 4.0으로, A학점은 5.0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성적이 GPA에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사진=shutterstock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